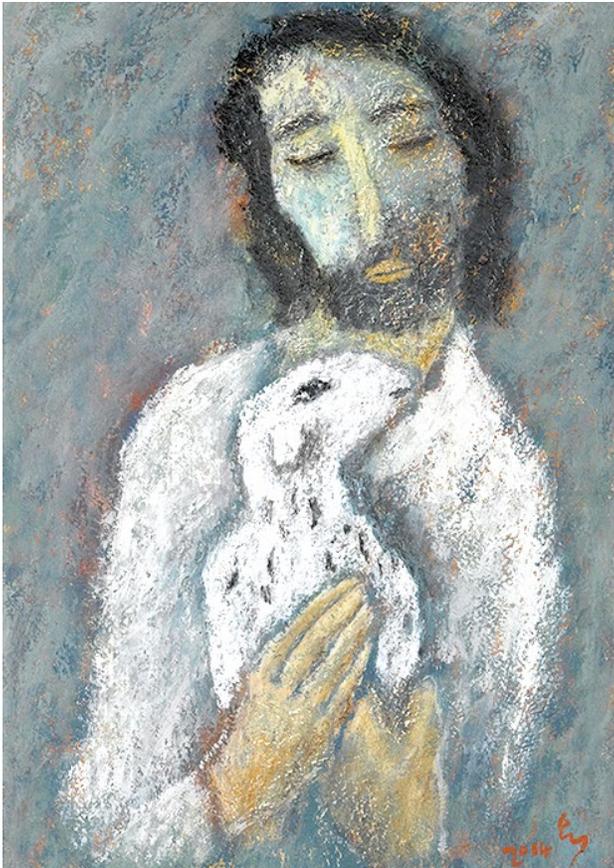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마르 6,34)



〈나는 착한 목자다〉, 김순옥 수녀 작

[제1독서] ..... 예레 23,1-6

[화답송] ..... 시편 23(22),1-3 7,3 나 4-4.5.6  
(◎ 1)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 에페 2,13-1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복음] ..... 마르 6,30-34

- [성가 안내]
- 입당성가: [4] 찬양하라
  - 봉헌성가: [215] 영원하신 성부  
[512] 주여 우리는 지금
  - 성체성가: [165] 주의 잔치  
[178] 성체 앞에
  - 파견성가: [65] 예루살렘 복되고

## 그들은 목자 없는 양들 같았다.

그때에 <sup>30</sup>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sup>31</sup>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sup>32</sup>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곳으로 떠나갔다.

<sup>33</sup>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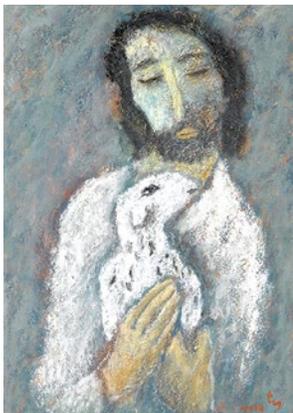
<sup>34</sup>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 그림 묵상

### 착한 목자 김옥순 수녀



〈나는 착한 목자다〉, 김옥순 수녀 작

우리의 목자 그리스도는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 양 떼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당신 생명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당신 양 떼인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 복음 묵상

인류의 역사에서 발생한 모든 전쟁은 어쩌면 더 많은 빵을 얻기 위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도와준다는 명분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자국의 이익을 더 많이 얻으려는 싸움일 뿐입니다. 테러와의 전쟁, 평화 유지를 위한 싸움도 무기를 팔아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얻고 그 지역의 지배권을 가지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옳은 전쟁과 싸움은 없습니다. 이렇게 역사 이래 인간의 탐욕은 전쟁과 폭력을 사라지지 않게 합니다. 그 때문에 가난한 이는 더욱 가난해지고,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역사 속의 전쟁과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짓밟으며 경쟁합니다. 짓밟지 않으면 짓밟히고 빼앗기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움에서 이기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늘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로 주위를 바라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마르 6,35-44 참조)을 행하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기 전, 예수님께서 어떤 시선과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셨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쉬고 싶으셨습니다. 쉬시며 허기를 달래고 싶으셨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오가는 바람에 제자들과 함께 외딴곳으로 떠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곳까지 쫓아와 예수님께서서는 쉬실 수도, 허기를 달래실 수도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배고프고 피곤하신 예수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당신의 허기를 달랠 빵이 아닌 굶주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 시선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빵이 필요합니다. 충분하기보다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내 이익과 욕심에 주의를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가난하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들과 함께 나눌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기적의 현장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최충훈 토마스 신부)

7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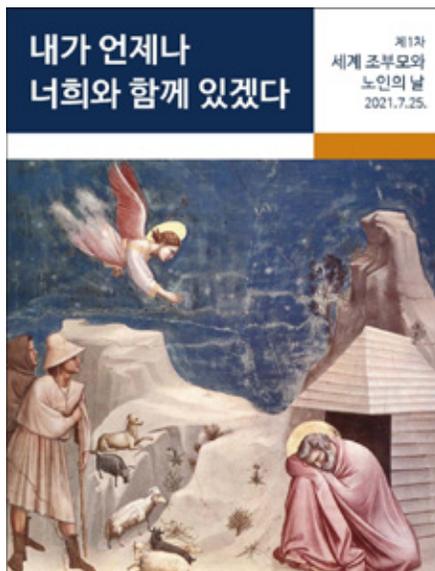
##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지내기로 한 결정은, 최근 들어 세계 곳곳에서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휩쓸 흔적과 노인 세대의 고통이 두드러진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노인들이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나고 그들을 위한 장례조차 변변히 치르지 못한 상황에 온 교회가 깊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은 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과 결코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기회입니다. 교황님께서 이날의 주제로 고르신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는 말씀은,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중에 그리고 우리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 극복의 때에도 온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노인들과 함께 있고자 한다는 바람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 조부모와 독거노인 방문하기

- ▶ 제1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은, 많은 나라에서 노인들이 여전히 미사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행될 것이다.
- ▶ 이날에 모든 이에게, 가장 외로운 이들에게까지도 친밀함과 위로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자신들의 조부모와, 그들 공동체의 독거노인들을 방문하여 교황 담화를 전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 ▶ 이러한 방문이 밖으로 나가는 교회의 가시적인 표징이다.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는 때에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지는 방문은 노인들 곁으로 다가가는 방법임을 보여 준다.
- ▶ 방문은, 성모님께서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하셨을 때처럼 일어나 서둘러 다른 이에게 가는(루카 1,39 참조) 개인의 선택이다.
- ▶ 방문은 모든 손주가 자신의 조부모에게 이렇게 말할 뿐 아니라,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방문하는 노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이다. “제가 언제나 함께 있겠습니다.”
- ▶ 방문은 꽃 등의 선물을 전하고,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기도를 함께 바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방문은 노인들에게, 특히 장기간 자신의 집을 떠나지 못한 이들에게 화해의 성사와 성체성사를 받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 ▶ **독거노인 방문**은 이날에 수여되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 ▶ 보건 위기 조치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곳에서는 사랑으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전화나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외로운 노인들을 만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 ▶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교황 담화는 소셜 미디어에 해시태그(#내가언제나너희와함께있겠다)로 방문 사진을 게재하며 공유할 수 있다.

### 노인들과 함께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준비하기

- ▶ 노인들은 이날 활동의 주요 대상이다. 교황 담화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 ▶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거행되는 주일 전례에 최대한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 본당 또는 교회 단체의 노인들은,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교황 담화를 읽고 성찰하는 데에 초대될 수 있다. 교황 담화를 인쇄하여 참석한 모든 이에게 배포하고, 영상 메시지를 함께 시청할 수 있다.
- ▶ 독거노인을 방문하는 이들은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이들에게 담화문을 전해 줄 수 있다.
- ▶ 이날에 함께하는 모든 조부와 노인에게 그들 공동체의 특별 지향과 함께 교황님의 기도 지향을 바치도록 맡길 수 있다.

### 젊은이들과 함께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준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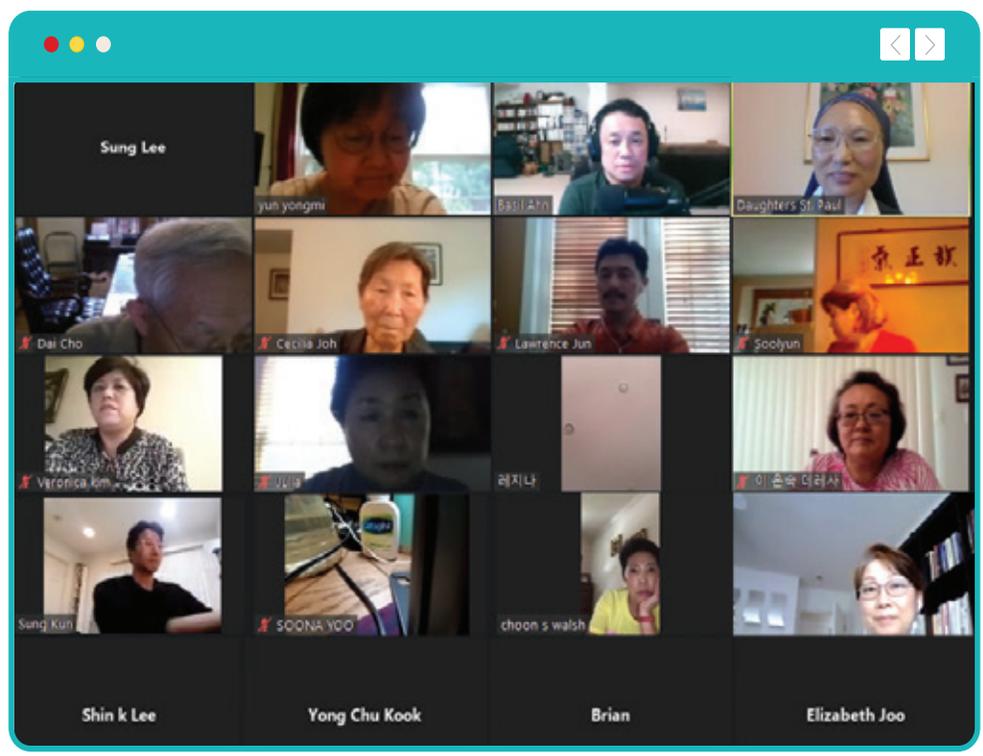
- ▶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거행을 앞두고 공동체의 젊은이들을 모아 이날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들이 가능한 많은 노인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 ▶ 마찬가지로, 이날을 거행하고 나서 젊은이들을 만나 노인 방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젊은이들은 해시태그(#내가언제나너희와함께있겠다)를 활용하여 이날에 관한 소식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캠페인을 조직할 수 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세상을 떠난 노인들 기억하기

- ▶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성찬례를 거행할 때에, 또는 특별히 할애된 시간에 본당이나 공동체에서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세상을 떠난 노인들, 특히 장례도 치를 수 없었던 이들을 잠시 기억할 수 있다.
- ▶ 한 가지 방법으로, 보편 지향 기도 끝에, 세상을 떠난 노인들의 이름을 차례로 소리 내어 부르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촛불을 하나씩 밝힐 수 있다.

# 바오로딸 성경학교 연수회

- 지난 7월 11일 비대면으로 열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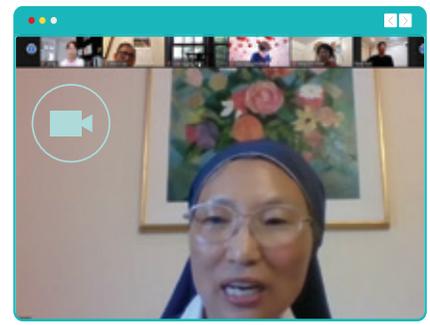


본당 성경공부 프로그램(교육부 주관) “바오로딸 성경학교”가 2021년 1학기를 마치며 지난 7월 11일(일)에 비대면(줌)으로 연수회를 가졌다. 1학년(구약) 11명, 2학년(신약) 22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회는 김태진 베네딕토 신부님의 격려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한국 “바오로딸 성경학교”는 한 학기가 끝나는 매년 1월과 7월에 일일 연수회를 개최하며 보충 강의와 특강 그리고 친교를 나누고 있는데, 지리적 여건상 한국 연수회에 참여할 수 없는 본당 학생들을 위해 본당에서는 '자체 연수회'를 하게 된 것이다.

이번 연수회는 성경강의와 동영상 청취, 나눔과 체험담 발표 등으로 구성되었다. 강의를 맡은 바오로딸 홍젬마 수녀님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죄는 하느님과 같아지고 싶은 인간의 자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믿음과 행동은 하나인 만큼 행동은 참 믿음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다.

체험담 발표에서 2학년에 재학중인 주 엘리사벳, 양 엘리사벳 자매는 성경공부에 대한 체험담을 통해 성경공부가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1학기를 이수한 참석자들은 8월부터 시작하는 2학기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연수회를 마무리했다.



△ 강의를 맡은 바오로딸 홍젬마 수녀님

## 1 7월 25일은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 교황청은 7월 25일(다음 주일)을 “제1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선정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외된 노인들을 방문하고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전대사가 주어집니다.(주보 3면 참조)
- 회장단 노인아파트 방문(애넌데일, 버크 아파트)

### 전대사

- 노인들은 이날을 맞이하여 거행되는 미사 가운데 하나에 참여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 보건 위기 상황이 이어진다는 점과, 건강상의 이유로 직접 미사에 참석할 수 없는 노인들을 고려해서, 전대사는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하여 미사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도 수여된다.
- 전대사는 이날에 독거노인을 방문하며 ‘자비의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이에게도 수여된다.
- 전염병 확산을 막고자 공공당국이 직접 방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곳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한 만남을 통하여 전대사를 받을 수도 있다.

## 2 하상회 월례회의

- 일시 : 7월 18일(일) 오전 11:40 친교실(B-3,4)
- 70세 이상 형제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3 안나회 월례회의

- 일시 : 7월 18일(일) 오전 11:40 친교실(A-1,2,3,4)
- 65세 이상 자매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4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7월 18일(일) 오전 11:40 하상관(#3,4)

## 5 K of C 월례회의

- 일시 : 7월 25일(일) 오전 11:30 친교실(B-4)

## 6 요한회 월례회의

- 일시 : 7월 25일(일) 오전 11:30 나눔터

## 7 유아세례식(8월부터)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 문의 : 사무실 (703) 968-3010

## 8 성당에서 마스크는 꼭 써주세요

- 거리두기는 하지 않습니다.
- 단, 평일과 학생 미사는 거리두기도 병행합니다.

## 9 예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예비자 교리는 주일 8시 45분에 하상관에서 있습니다.
- 예비자들이 교중미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니 기도와 관심,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본당 승격 25주년 기념 행사 안내

- \* 9월 19일(일) : 효도 한마당
- \* 9월 26일(일) : 25주년 기념 본당 골프대회 (Bristow Manor Golf Club)
- \* 10월 3일(일) : 25주년 감사미사 : 오후 3시 (마이클 버짓지 주교님 미사 집전, 역대신부님 초청)
- \* 10월 16일(토) : 장터한마당, 본당 주차장
- \* 10월 23일(토) : 5K Run & Walk(Burke Lake)
- \* 11월 : 교리경시대회(천주교 교리문답을 중심으로)
- \* 12월 : 본당 대림 특강(12월 5일, 12일)

### 본당 정상화에 따른 행정 지침

1. 미사 참석자는 꼭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2. 성당에 들어갈 때는 꼭 손 소독을 해야 합니다.
3. 미사 때 응답과 성가는 작은 소리로 할 수 있습니다.
4. 평일미사때는 거리두기를 유지합니다.
5. 회합을 할 때에 마스크를 쓰고 합니다.
6. 회합 장소는 사전에 사무실과 협의합니다.
7. 모든 모임은 사도회 담당 부회장과 사전에 협의합니다.

## 2021-22 하상 한국학교 정규학기 등록

1. 입학 대상 : 유치부~1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K~ 12<sup>th</sup>)
2. 학사 일정 : 2021년 9월 11일 ~ 2022년 5월 21일  
매주 토요일 9:30 am ~ 1:00 pm
3. 학비 : \*등록비는 환불 안됨
  - 첫째 자녀 \$490 (등록비 \$50 + 학비 \$440)
  - 둘째 자녀 \$450 (등록비 \$50 + 학비 \$400)
  - 셋째 자녀 \$400 (등록비 \$50 + 학비 \$350)
4. 등록안내 : 등록비 \$50과 함께 아래 방법으로 접수
  - 등록원서 구글폼 링크 : <https://forms.gle/j8YRJUqqmaggPz9cu5>
  - 등록비 보내실 곳 : Hasang Korean School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5. 등록 마감 : 8월 15일 (등록비를 보낸 후에 등록 완료됨)
6. 문의 : 교감 김정선 (571)217-8941

\* 자세한 내용은 성당 웹사이트 [www.stpaulchung.org/content/korean-school](http://www.stpaulchung.org/content/korean-school)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황님의 7월 기도 지향

#### 보편 지향 : 사회적 우정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대화와 우정을 가꾸어 나가는 장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1년 7월 11일(연중 제15주일)

주일헌금	\$ 5,371.00
교무금	\$ 11,570.00
교무금(신용카드)	\$ 2,220.00
감사헌금 & 성소후원회	\$ 1,040.00
2차 헌금	\$ 2,564.00
온라인 봉헌	\$ 2,650.00
<b>합계</b>	<b>\$ 25,415.00</b>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7월 21일(수) 오전 6:15-6:45  
7월 24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김태진 주임 신부님의 주일 미사 강론
- 본당 공지사항
- CBCK 미디어 교리 - 십계명

※ [www.dc1310.com](http://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 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버지니아 성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7월 22일(목) 오후 5:00-6:00  
7월 23일(금) 저녁 8:00-9:00  
7월 25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1. CPBC 뉴스
2. 신부님 미사 강론
3. 그래서 오늘은 신비롭다 : 김대우 모세 신부 - 네번째 이야기 “내가 먼저 사랑했다.”



성당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 미사에 참석할 때나 성당에 오실 때는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 • 5:00 PM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5:00 PM(English Mass)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